

한라시론



진 관 훈
제주지식산업센터장·경제학박사

2026년 상반기 제주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5.6% 늘어난 4억 4231만 달러다. 역대 상반기 가장 높다. 2026년 7월 한국의 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한 988억 9000만 달러다. 역대 2위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경제는 물론 제주 경제도 아주 잘 나가고 있구나! 할 수 있다.

제주 수출에서 반도체 기업 비중은 지난해보다 27.1%포인트 높아진 76.5%다. 상위 5개사 점유율은 92.3%다. 반면 상위 5개사를 제외한 137개사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4%

K자형 성장 사다리 올라타기

줄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액이 410억 1000만 달러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 역시 역대 최대치다. 이 대목에서 생겨나는 격정이 바로 K자형 성장 속에 숨어 있는 평균의 함정이다.

K자형 성장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특정 산업이나 계층은 빠르게 우상향 하는 반면, 다른 부문이나 세대는 아래로 추락하여 마치 알파벳 K자 모양처럼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에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다. 성장률과 수출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국민 모두의 삶이 그만큼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K자형 성장의 함정은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엄청 가혹하다.

K자형 성장의 함정과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기란 개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추락하지 않을 제도, 즉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누구든 노력만 하면 성장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고, 한번 미끄러져도 또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국 K자형 성장의 함정에서 살아남기가 바로, K자형 성장 사다리 올라타기다.

첫째, 일자리 사다리 만들기다. 도민들이 취업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둘째, AX 대전환을 위한 교육과 재교육 사다리 놓기다.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중장년층까지 AI·디지털 재교육받게 해야 한다. 셋째, 창업과 소상공인 사다리 강화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농어업인, 자영업자에게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유통, 제도전 특별자금, 페스트 트랙 등을 제공하여 성장 흐름에 올라

타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넷째,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 사다리 만들기다. 일 경험 확대, 장기 저리 주거와 자산 형성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보급해야 한다. 다섯째 기본 사회 틀 안에서 사회안전망 사다리 구축이다. 안전망은 추락했을 때 받아주는 그물이면서 동시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사다리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사다리다. 제주에서 만들어지는 관광·환경·에너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도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 모두를 바탕으로 제주기업 조달, 지역 내 고용, 로컬브랜드, 사회적 경제, 농수축산물 소비증가→기업매출→도민소득→지역소비→다시 제주기업 매출신장이라는 선순환적 자립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설

미불용지 잇단 법적 분쟁, 근본 대책 세워야

제주도가 미지급용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아 도청 소유 계좌까지 가압류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가 수만 필지에 달해 유사 사태가 재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서귀포시 서귀동과 남원읍 6개 필지 토지주는 제주도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는 십 수년째 제주도가 자신들의 땅을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주도가 토지주들에게 부당이득금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공용인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이다. 토지주들은 승소하고도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주도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는 초강수를 뒀

다. 그동안 제기된 미불용지 소송이 수백 건에 이르지만 패소로 인해 계좌까지 가압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제주도는 예비비를 동원해 부당이득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가압류는 해제됐지만 급한 불만 끈 미봉책에 그쳤다. 또 다른 미불용지 소송에서도 부당이득금 지급이 지연돼 계좌가 압류됐기 때문이다.

미불용지에 대한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미불용지가 3만4000여필지에 달해서다. 미불용지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제주도 재정 여건상 녹지사 않다. 하지만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 소송에 따른 계좌 가압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마련해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RISE사업 교수간 나눠먹기 안된다

지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와 도비 총 2998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지역 혁신중심 대학원체(RISE)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 혁신 지원 사업이지만 지역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 RISE센터로부터 받은 ‘제주 RISE 사업 1차년도(2025년도) 수행대학 창업기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RISE 사업을 통해 창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모두 19곳으로 제주대 14곳, 한라대 3곳, 제주관광대 2곳이다. 문제는 제주대가 지원한 14개 기업 가운데 현직 교원이 창업한 기업이 6개로 당초 목표했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산업 발전이라는 사업 목표를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 창업기업은 대학 자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수상한 동아리팀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창업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폐업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인재를 지역에 단단히 묶을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 중심에서 학생·인재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방향을 바꾼 만큼 2026년도 성과를 기대해 본다. 밀 빠진 독처럼 지원만 있고 대학과 지역이 연계된 창업과 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주RISE사업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열린마당

‘기우제’가 아닌 ‘기풍제’를 지내야 하나?



유 중 인
제주도자연재난방재연구원장

한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업 현장에서는 물이 부족해진다. 수자원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에서 비는 중요한 자원이다.

태풍은 바다에도 영향을 준다. 강한 바람은 바다의 표층과 아래층을 뒤섞고, 따뜻해진 표층수의 수온을 낮추거나 깊은 곳의 영양염을 위쪽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옛사람들은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기우제’를 지냈다. 그렇다면 태풍마저 제주를 계속 비껴가는 시대에는 ‘기풍제(祈風祭)’라는 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비를 가져다주는 ‘효자태풍’ 하나쯤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태풍도 단순히 ‘오면 나쁜 것, 안 오면 좋은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바짝 마른 제주에 단비를 내리고 뜨거워진 바다를 한번 뒤섞어 주면서 조용히 물러나는 효자태풍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안전 불안 확산에 위성곤 지사 밤길 점검

“충분한 밝기 확보해야” 주문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제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밤길을 걸으며 안전을 점검.

위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7시 15분부터 약 40분간 제주자치경찰과 함께 제주시 연동 일대를 걸으며 방범용 공공 CC(폐쇄회로) TV와 비상벨 작동 상태 등을 살피고, 가로등 밝기 등을 확인.

위 지사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용이 많은 상업지역일수록 위험 요소가 큰 만큼, 그에 맞춰 가로등과 조도를 갖춰야 하며, 밤길 안전의 기본은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현장의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

이성민기자

사회보장계획 공청회 개최

○…서귀포시가 오는 8일 ‘제6회(2027~2030)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갖고 향후 4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시정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

이에 계획 비전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이 행복한 서귀포시’로 설정하고 ▷함께 만드는 촘촘한 온기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맞춤형 건강케어 ▷내일이 든든한 일자리·주거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문화·여가 등 4개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

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간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고영빈(1991. 09. 07.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한림읍 금능2길 18,

상기자는 2026년 5월 2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7월 29일 제주지방법원 2026느단355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한림읍 금능2길 18,
2026. 9. 3.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승범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홀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